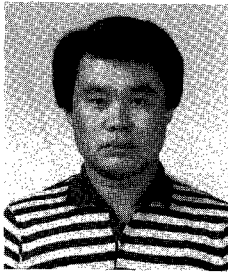


다운폭 최소화 하는 고시제도 정착에 노력을



전 익 표
원주채란분회장

대 한양계협회 제15대 회장직을 맡게된 장대석 회장께 지면을 빌어 축하를 드리는 바이다.

채란업계는 1990년대 이후 급속히 성장을 거듭하면서 지난해 국민 1인당 183개의 계란을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외형적인 성장을 해왔다. 그러나 1992년부터 계속적으로 농가를 엄습해온 가금티푸스와 1997년 말부터 불어닥친 외환위기는 우리 채란업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게 현실이다.

필자가 채란업 발전을 위해 신임 회장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크게 유통문제와 질병문제를 들 수 있다.

이 두가지는 필자뿐만 아니라 모든 채란인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당면문제로 유통의 경우 우리 생산자들의 고유 권한이라 할 수 있는 계

란가격 고시제도에 대해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많은 생산자들은 계란 고시 제도가 유명무실하지 않느냐는 중론이 일고 있으며 유통이 흐려지면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생산자 자신이다. 그러기 위해 최대한 다운폭을 줄여 생산자들의 힘을 실을 수 있는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질병의 경우 농가에서의 피해는 정말 심각하다. 가금티푸스 뿐아니라 인플루엔자의 위험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우선적으로 가금티푸스 생독백신 수입건에 대해 회원들에게 시원한 답변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아무리 부루셀라 백신 파동으로 정부 공무원들이 미동을 하기를 꺼려한다고 하지만 우리 생산자 단체도 그대로 보고만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본다.

양계인들이 몰살한 후에 사후약방문식이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특히 산란중계를 환우할 경우 이 닭에서 생산된 산란실용계는 각종 질병에 약하므로 생산성이 떨어짐은 물론 질병 발생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일반 농가에서는 정보부재로 이런 병아리를 어쩔 수 없이 사는 경우가 많은데 협회에서는 환우를 하는 부화장을 공표하여 생산자들이 피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도 질병예방 측면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려운 시점에서 협회를 운영해 나간다는 것은 무척이나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서서히 경제가 일어서고 있다.

올 한해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겨내고 밝아오는 21세기를 가벼운 마음으로 맞을 수 있도록 역량을 펼쳐주길 바라는 바이다. **양계**